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_ 로마서 8:28

오늘의 주요기사

2 신년 특집
3-4 교단 소식

5 목회칼럼
6 공동체 소식



오징어 게임

SQUID GAME

LE JEU DU CALMAR

오징어 게임

친구들과 더불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만 있으면 해가 지도록 즐거울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감독이 이 천진난만한 놀이를 오늘의 사회를 풍자하는 은유로 끌어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9월 17일 개봉한 미니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3주가 안 되어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게 보았다는 이 드라마 속에서, 문득 부끄러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는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오징어 게임을 멈추어야 한다”(3면)는 그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함글함글

가르침이라는 것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뽑지 말고 사라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 1층에 작은 무인 문구점이 생겼다. 말이 문구점이지 사실은 장난감 가게이다. 가게 안에 장난감들도 꽤 있는데 핵심은 가게 밖에 있는 뽑기통이다. 마트에 가면 입구 쪽에 보이는 뽑기통 6개 정도가 가게 밖에 있는데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게 있어서인지 아이들 눈에 한 번에 보였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원하는 것을 한가지씩 골랐다. 그리고 동전을 넣고 돌렸다. 첫째가 고른 것은 연결하여 스피너가 되는 뽑기였고, 둘째가 시작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푸쉬팝이라는 것인데 그게 작은 알파벳 하나씩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뽑기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알파벳을 시작했으니 A부터 Z까지 다 모으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다. 예전에 뽑은 것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언제쯤 끝날지 사실 알 수가 없다.

재택근무여서 집에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둘째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었다. 500원 짜리 알파벳 푸쉬팝 뽑기를 하러 다시 나갈 거라서 옷을 안 갈아입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간식을 먹고 엄마와 함께 뽑기를 하러 간 둘째는 형아 것까지 2개를 뽑아 왔다.

뽑기를 하고 싶어서 나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기를 하고 온 둘째 표정이 심상치 않다. 금방이라도 울 거처럼 울상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1,000원짜리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500원짜리를 하라고 해서 우울해졌다고 한다. 나도 분명히 500원짜리 뽑기를 하러 갈 거라고 들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또 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우울하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뽑기가 아니라고 말해줬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냥 사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뽑기인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걸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울해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뽑기처럼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울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요행을 바라며 뽑기를 하기보다는 원하는 그것을 사면 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다.

이 말을 생각하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 기도는 하지 않고 요행처럼 바라기만 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아이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책 속의 명문장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파커 J. 팔머 지음, 이종태 옮김 IVP, 2006

● 진정한 영성은 진리를 향해 우리를 열어 준다. ● 교육의 영성이 해야 할 일은 목표를 강제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의 내적 원천을 검토하고정화시키는것,우리의 마음과 지성에서 해로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 우리는 교육의 목적 - 앎과 가르침과 배움 - 과 일치하는 공동체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 이어야 한다. ● 진정한 학습은 학생이 교사, 다른 학생들 그리고 그 학과와의 관계로 인도될 때 비로소 일어난다.

●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은 인식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 우리에게 '온전한 시각' 즉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각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세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 ● 우리에게 두려움과 맞설 소망의 이미지가, 죄를 아는 지식에 맞설 은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소망과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정직한 자기 성찰과 이어지는 자기 고백 - 용서와 변화의 근원을 향해 자신의 내적 어둠을 바치는 일 - 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은혜와 소망을 얻고자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지식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또한 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독교 영성이 언제 하는 인격적 지식은 우리를 세계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 속으로 인도해 들이는 지식이다. ● 지식의 양태는 곧 삶의 양태가 된다. 자아는 자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무관할 수 없고, 세계 역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앎을 통해 우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곧 삶에서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된다. ●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인식 대상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지성이 따로 떼어놓은 것을 새로운 삶을 통해 재결합시키는 것이다. ●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 ●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논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명제나, 실험실에서 시험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제시하셨다. ● 가르침이란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와 내면에 있는, 배움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진리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을 수 있는 장벽을 치우는 것이다... 앎을 위한 공간을 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과, 배움의 공간을 메워 버리려는 불안한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진리를 향해 열리게 되는 자리는 논쟁보다는 침묵이다... 나는 침묵을 통해서, 대답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배웠다. ● 질문만이 교육적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사실이나 이론, 충고나 대답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로서 우리는 늘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지나치게 익숙하기에, 그것도 교육적 목적이 아닌 회피적 목적으로 그럴 때가 많기에, 특별히 진리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질문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우리 모두를 순종의 삶으로 끊임없이 다시 부르는, 사랑이 깃든 원천으로부터 오는 살아 있는 말씀만을 숭상해야 한다.

교단 소식
생생논평

기독교인, 오징어 게임을 멈추어야 한다

넷플릭스를 통해 9월부터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사상 최고의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단 기관지 <한국기독교공보> (2021.10.12)에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통해

기독교인의 사명을 성찰하는 글이 수록되어 전제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함줄함울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456명의 참가자들은 상금 456억원을 걸고 옛날 어린 시절 놀이를 진행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따기, 줄달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의 여러 게임을 진행합니다. 탈락하면 그 순간 목숨을 잃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돈 때문에 죽고 죽어야만 하는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줄달리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자 감사기도를 드리며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살아남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거짓 신앙입니다. 이런 분을 성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공멸의 시선으로 봅니다. 타인의 죽음과 고통이 결코 나의 감사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어찌하든지 공존과 공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타인을 희생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아버지를 죽이고 출소한 어린 나이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힌 아픈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지만 고통스런 내용이었습니 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칠해 지게 하는 내용이었습니 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부류라면 그냥 나쁜 인간입니다.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는 직업란 항목에 목사로 기입을 할 것이지만 진짜 목사로 보기도 힘든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성 문제, 재정 문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목사 이전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위선과 거짓을 벗기는 진리위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결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둠의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징어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된 주인공의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길거리에 버

려집니다. 그때 다른 행인들은 주인공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열정적으로 외치던 한 전도자가 다가와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길바닥에서 눈을 뜨자, 남자가 그에게 내뱉는 말은 "괜찮아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조건 없이 품고 조건 없이 섬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지만 삶은 공감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삶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존재입니다. 말이 아닌 삶이 전도지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져서 안타까웠습니 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뼈아픈 자성과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드라마속의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과는 삶의 결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의 존재 방식도 오징어 게임과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 다. 오징어 게임을 두고 도박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 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주마나 싸움닭처럼 전략해서 죽고 죽이는데 그것을 돈을 걸고 즐기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 다. 그 속에서 단순하지만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 다. 돈 앞에 부모형제, 친구, 동료도 없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동료가 배신을 합니다. 약자만 계속 죽습니 다. 루저들끼리 싸우고 계속 죽어갑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일상인 세상 속에서 오징어 게임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양한 모습의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오늘의 경제 양극화 현상이 오징어 게임의 결과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이익만 추구하는 언론과 정치의 진영논리가 오징어 게임의 결과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남북의 통일 문제도 오징어 게임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부터 패자부활전이 없는 오징어 게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오징어 게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죽고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오징어 게임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공존, 공생, 공감을 추구하는 대안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현실의 여러 오징어 게임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멈추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오징어 게임에 스스로 가도록 유혹받고 오징어 게임에서 패배하여 죽어가는 것을 멈추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 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가인의 소리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각종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군사.. 각 영역의 오징어 게임이 멈추어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상갑 목사

교단 소식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킬 것인가?

농경사회 넘어 환경 변화... '감사' 의미가 우선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2021년 10월 12일)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흥미있는 기획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공보> 아카이브를 통해 추수감사절에 대한 지난 40여 년 간의 논의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전제 합니다.

함줄함울

기독교계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한국기독교공보>도 1981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1월 14일자 사설에서 "그옛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낯설은 폴리버드지역에 상륙하여 천신만고 끝에 얻은 추수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때 수확이 풍작인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토록 감사한 것은 추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신앙이었고, 그보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된 구원의 뜨거운 감사가 마음속에 넘쳤으리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추수감사절 유래를 이후 기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감사에 대한 의미의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생각이 달랐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수확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감사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전통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절의 의미가 우리나라 추석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공보 아카이브 검색창에 '추수감사'와 '추석'을 동시에 검색해 본 결과 51건이 검색됐다. 전통적인 추수감사주일(11월 셋째주)이 아닌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는 내용의 기사는 1976년 3월 27일자 3면에 게재된 교회협 청년협의 기독교청년정책협의회 기사이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추석절을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고 협의회 결의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후 <한국기독교공보> 1982년 11월 6일자 '교회용어해설<24>'에서 필자인 하해룡 목사는 '추수감사절(秋收感謝節)'에 대해 유래를 설명한 후 "감사절의 뜻을 생각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둘째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세째는 오곡백과 즉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였다"고 정리하면서 "이 감사절은 한국의 그윽한 전통적인 풍속에서 생각할 때에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지키면 더 토착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논제를 제시했다.

또 <한국기독교공보>는 같은 해 11월 20일자 사설에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교회나 교인들에게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변혁이 생겼다. ... 아쉬운 것은 추석을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교회의 축제로 바꾸어놓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음도 사실이다"며 생각을 전했다.

한편 감사주일의 시기를 전통 명절인 추석과 연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기사화 됐다. 1981년 11월 14일자 특집으로 기획된 '各國(각국)의 感謝節(감사절) 풍습 소개' 기사에서 "한국은 추석을 오래전부터 민족의 날로 지켜왔고 음력 10월(상당)엔 미신이나 고사떡을 돌려 나눠먹는 풍습이 아직도 시골에는 남아 있다"며 기독교의 감사 절기와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시기에 대해 <한국기독교공보>는 1986년 11월 22일자에서 '감사의 달을 보내며' 주제로 기획한다. 기획의

편집자주에서 1971년 총회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주일을 총회가 제정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창환 박사(당시 장신대 학장)를 통해 감사절의 토착화 문제를 이 슈화했다. 박창환 박사는 원고에서 농경사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함께 산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에 맞춰 교회의 재량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의 산물인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절 시기에 대해 박창환 박사는 "우리가 이미 1백세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매사의 의미를 알고 행해야 하겠다"는 이유를 든다. 비단 추수감사절만 아니다. 우리의 의식(儀式) 전부와 제도와 구조 등이 모두 서양 것이고 남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검토해 볼만한 때가 됐다"고 설명하며 보다 폭넓게 감사절의 의미와 지키는 시기를 열어 놓았다.

또한 같은 신문에 게재된 총회 추수감사절 연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 제72회 총회에서 제71회에서 연구해서 보고한 '추수감사주일 제정안'이 1년여 연구기로 했음을 보도하면서 제정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제정안에 대해 위원들은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거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온 감사의 날 추석을 우상숭배의 날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고, 추석을 전후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해 전국민적인 국경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사실상 이양기 및 추수기가 1개월 가량 앞당겨졌으므로 10월 둘째 주일을 한국적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임을 확인했다.

이같이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관련 관심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교회들이 형편에 따라 추석을 전후한 주일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온 11월 셋째주일까지 주일을 정해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기독교공보>는 '다시 생각해 보는 추수감사주일'을 제목으로 한 1996년 11월 9일자 사설에서 "... 본 교단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다르게 지키는 줄 알면서도 아직 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 무질서해 질 것이다. 현재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을 가까운 시기에 다른 주일로 변경하는 것을 총회는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적절한 때를 선정하는 것이 토착화 신앙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며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 5면으로



1989년 11월 18일자 추수감사절 관련 기사

목회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나아갈 길

현실은 오늘 교회의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인이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신음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악과 죄와 고통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마주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회의 지향점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일상을 예상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중한 존재인지, 그동안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욕망하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으로 피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결국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재난이 일어났고, 재난은 다시 사회 전체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뒤틀림은 결국 인간을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한 위기사회로 내몰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류애를 굳건히 함으로써 경제적 상황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창조세계의 생명과 연약한 지체의 기본권에 가치를 두는 생명 중심의 삶을 실천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 즉 영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공동선의 확산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함을 뜻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신앙

마스크 한 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주제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일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은 오늘 교회의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인이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신음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악과 죄와 고통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마주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시므로, 우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회/자연과학, 정치와 언론 영역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하여 뒤틀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교회와 복음적인 삶, 즉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의 공공성과 차별성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님의교회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참고자료

『재난과 교회1』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임성빈, "재난과 사회변동, 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공보) "안전한 교회에서 위험한 교회로"

황바울 목사

> 4면에서

2001년 11월 3일자 주간논단 필자 정태봉 목사(묘동교회) 또한 "추석이 우리 교회의 감사하는 신앙, 특히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전혀 상관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로서의 추석과 말 그대로 서양에서 유래한 서양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을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명절로 이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은 특별감사 헌금을 더 내야만 하는 다소 부담스러운 절기로만 뇌리에 남게 되는 것일 뿐,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함께 잔치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기쁨과 나눔과 감사의 모습은 더 이상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나아가서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봉 목사의 논리는 교회별로 추석에 맞춰 10월에 한 주를 정해 추수감사주

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교단의 입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당겨 지키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비록 도시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일년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친다는 성서 고유의 개념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또한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과 맥을 함께 한다는 성과도 비교적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공보> 아카이브를 통해 본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결론이 없이 이어지면서 교회들은 형편에 따라 감사절이 지켜지고 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느냐는 것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충실하게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주일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박민서 기자

어와나 소식

어와나 그랑프리 대회 입상



2021년 10월 9일(토) 어와나 그랑프리대회가 개최되었다. 어와나 그랑프리는 사각형의 나무 블록을 깎고 색을 칠해 자동차 형태로 만들어 전용 자동차 트랙 위를 달려 시간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경기를진행하는 대회이다. 클럽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깎고 바퀴를 조립하고 색을 칠해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 출품하였으며, 대회는 속도를 기록하여 겨루는 스피드 대회와 자동차의 다양한 모습으로 만든 디자인의 심사를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디자인 대회로 두 가지의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그랑프리는 전국(서울, 경인, 경상, 충청, 전라)에서 53 교회 750대가 출전하였으며, 각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215대가 전국 본선 경기를 치렀다. 이 행사에 주님의교회 어와나 티앤티(3~6학년) 29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3달여 동안 각자의 개성과 에피소드를 담아 준비한 자동차로 출전하여 디자인 부문에서 양은우(3학년) 어린이의 '독도는 우리땅'차가 전국 1등을 수상하였고, 서울지역 스피드 부문에서 임은찬(4학년) 어린이가 2등을 하였으며, 박가은, 전수현, 정상은, 최지인, 송태균 어린이가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가 있었다.

교회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대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와나 클럽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달리는 모습을 온라인 방송으로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부모님과 자동차를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하였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만들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이 참 감동입니다~~”라고 응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유진 집사 / 어와나 티앤티 디렉터

교회일정

10/22(금),23(토) 정책당회
10/31(주일) 종교개혁주일

알립니다

1. 8교구 부부, 가정 세미나

주제 : 건강한 자존감과 계시적 칭찬

대상 : 가정 회복과 신앙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 10/17(주일) 오후 1:00 온라인(ZOOM)

강사 :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2.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

주제 :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일시 : 10/23,30,11/6,13(토) 오전 6:30

(유튜브 실시간)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함줄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줄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이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줄함울

음악위원회 온라인 연합수련회

일시 | 2021.11.7(주일), 3PM 방법 | Zoom 온라인 실시간

“다시 사는 삶,
다시 찾는 행복”



강사 | 채정호 박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정학교 교장
높은뜻 푸른교회 청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_ 잠언 22:6

기간 10.16 ~ 11.20 (하반기) 시간 매주 토요일 6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가을 들판,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듯

주님의교회 8교구 부부세미나

건강한 자존감과 계시적 칭찬

일시 2021년 10/17(주일) 오후 1시
참여방법 온라인(ZOOM)
문의 한시영목사(010.8935.5048)



장경철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 신학박사)
현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회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1주(10/23) 깊이 들어가기 (가-4학년) 한일 - 조영환 전도사 (교동부)
2주(10/30) 내 믿대로 가지 않기 (5-8학년) 한일 - 한시영 목사 (8PC)
3주(11/6) 주의 뜻이 무엇지 살펴보기 (신학교) 한일 - 황규만 목사 (청송부)
4주(11/13) 주와 함께 들어가기 (9-12학년) - 임경순 목사 (청송부)

일시 10/23,30 11/6,13(토) 오전 6:30-7:30

대상 유등분 실시간 기도회 (상황에 따라 대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수험생을 둔 부모, 교사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